

'3퇴'와 평안

제 360기 2019년 5월 4일

2019년 4월 29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3억 3,146만 명

홍콩 파룬궁 수련생, 집회 행진으로 중공 박해 반대

[명혜망] 2019년 4월 27일, 홍콩과 아시아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온 파룬궁 수련생 1천여 명이 성대한 집회와 행진을 펼치며 '4·25' 1만 인 평화 상방 20주년과 중국인 3억 3천여만 명의 중공 당, 단, 대 조직 탈퇴(약칭 '3퇴')를 기념했다.

여러 정계요인과 유명인사는 집회 발언을 통해 파룬궁의 보편적 가치인 '진(眞), 선(善), 인(忍)'을 찬양하고,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중공의 박해 저지와 박해 원흉 사법심판을 호소했다.

홍콩 파룬따파(法輪大法) 불학회 대변인 전홍장(簡鴻章)은 말했다. "전 세계에 바른 기운이 상승해 사악의 박해를 끝내고 바른 신앙을 존경하는 국면이 이미 형성됐고, 중공 사악의 박해 기제를 해체해 박해를 결속짓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각국 정부와 각계 민중을 향해 공동으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권장하며, 중공의 박해 저지에 역량을 강화하고, 박해 원흉 사법처리를 촉진하고, 공산 조직을 평화적으로



원흉 심판, 박해 중지

로 해체해 중국과 전 세계로 하여금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자고 호소했다.

전 세계 중공 탈당 서비스센터 주석 이룡(易蓉)은 전화 발언을 통해 3.3억 중화 자녀가 '3퇴'를 했다며, "'3퇴'의 큰 물결이 중

국인의 도덕, 양심과 용기를 일깨우고 있고, 중화민족의 호연지기를 응집시키고 있으며, 중화민족에게 광명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의 노란색 장교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인사를 했다.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6세예요." "웃과 용모를 보니 틀림없는 간부네요." "그래요." "은퇴 후에는 어디에 계세요?" "중난하이예요." "어떤 급별이예요?" "군급이예요. 나는 46년도에 군인이 됐어요." "어르신은 정말 타고난 복을 가졌네요. 몸도 이렇게 좋으시고." "아직 괜찮아요."

"혹시 퇴당, 퇴단, 퇴대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입당을 시키듯이 퇴당도 허락해요." "제가 말하는 퇴당은 마음속으로 탈퇴하는 건데, 실명을 안 써도 되고 마음속으로 탈퇴하면 돼요. 머지않은 장래에 큰 재난이 닥치고, 하늘이 중공을 멸할 거예요. '3퇴'를 하고 나면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공산당 관리 중에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던가요? 영원히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성인은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고 했어요. 하늘이 다스릴 때가 되면 그런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해요. 제가 가명을 지어서 탈퇴시켜 드릴게요. 실명은 필요 없어요." "그래요." "성이 어떻게 되세요?" "모 씨예요." "그럼, 어르신이 동해 같은 복을 받고, 남산처럼 장수하시도록 하이산(海山)이라는 이름으로 탈퇴하세요." "좋아요."

중난하이 퇴직 군급 간부의 탈당

[대륙 투고]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구이저우 아가씨, "중국공산당 멸망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

[대륙 투고] 어느 날 오전, 나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구이양(贵阳) 출신 아가씨 한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어느 곳으로 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마침 나도 그 곳에 가게 되어 함께 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물었다. "구이저우 장부향에 '장자석' 관광지가 있는데, 알아요?" 그녀는 안다면서, 절벽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몇 글자가 있다고 했다. 내가 여섯 글자라고 하자 그녀는 "중국공산당 망(亡)"이라고 했다. 나는 천연적으로 형성됐으니 바로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맞아요. 바위 옆에 또 수족관이 있는데, 그 속에는 글자의 의미가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듣기로는 글자의 윤곽이 갈수록 또렷해지고 있는데, 의미가 실현되는 날이 임박했다는 뜻이라고 해요. 지금

사회가 보기에도 어떨던가요? 탑오 부패에다, 도덕의 추락은 끝이 없고, 인성의 존엄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워진 근원이 중국공산당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그걸 멀하게 됐는데,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중공은 권력을 탈취한 이후로 온갖 나쁜 일을 저질렀고, 무고한 중화 자녀 8천여만 명을 살해했으며, 중화 문명고적을 파괴했고, 흙백을 뒤틀렸으며, 폭력과 거짓말에 의지해 사악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옛말에 '불의를 많이 저지르면 반드시 스스로 망한다'고 했으니 중공은 곧 망할 거예요. 지금 도처에서 '하늘이 중공을 멸하니 3퇴해서 평안을 보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멀리해야만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요. 당신은 중공의 당, 단, 대에 가입했나요?" 그녀는 소학교에서 붉은 스카프만 맴다고 말했다. 내가 탈퇴해버리라고 말하자 그녀는 아주 기쁘게 동의했다.

중난하이 퇴직 군급 간부의 탈당

[대륙 투고] 한번은 길 옆 계단에 앉아 있는 노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60~70년

‘중국법정’ 2차 개정,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에 집중

[명혜망] 2019년 4월 6일과 7일, ‘독립 인민법정 중국법정’이 영국 런던에서 제2차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법정은 2018년 12월, 30명의 증인 진술을 청취한 후, 중공의 양심수 장기 강제 적출을 고발하는 증거 수집에 한 걸음을 더 내디딘 것이다. 법정 변호인단의 도움 속에 재판장 제프리 니스 경과 5명의 배심원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심리를 진행했고, 전문가 한 사람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심리했다.

증인 23명이 출석 증언과 온라인 영상으로 증언하다

증인 23명이 현장 출석 증언이나, 영상 통화로 증언을 제공했다. 그들 중에는 사실 증인, 전문가 증인, 조사원과 장기이식 의사가 있었다.

파룬궁(法輪功, 法輪大法)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공의 잔인한 박해를 받은 파룬궁 수련생 양진화(楊金花), 위밍(于溟), 위징(于靜), 왕춘영(王春英), 탕리쥐안(唐麗娟)과 청정(曾錚)은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행위의 구체



2019년 4월 6일, 파룬궁 수련생 위밍이 영상 통화를 통해 ‘독립 인민법정 중국법정’에 증언을 했고, 중공의 범죄행위를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적인 사실을 법정에 제공했다. 파룬궁 수련생 위밍은 지난 20년 사이에 중공에 의해 총 12년 동안 불법 감금을 당했다.

4월 6일, 그는 미국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중국법정’에 증언을 했고, 중공이 파룬궁을 상대로 채용한 각종 비인도적인 고문 박해를 폭로했다. 청정은 자신이 파룬궁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중공의 잔인한 박해를 당한 경험을 진술했다. 그녀는 배심

원 전문가에게 알려주기를 중공 체제에서는 인류의 존엄을 파괴하고 인성을 유린하지 않는 곳이 없다며, 이는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금된 기간에 이유를 밝히지 않은 X선 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률고문, “중공이 저지르는 반인류 죄를 전 세계에 알리자”

‘독립 인민법정 중국법정’ 법률고문 하미드 사비는 2018년 12월 제1차 공청회 후 인터뷰에서 밝혔다. “양심수 장기 강제 적출은 인성을 철저히 위반한 것이며, 인류를 해치는 죄(반인류죄)입니다. 또한 (중공의) 국가 정책 하에 집행되는 범죄이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 정책 하에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파룬궁 수련생을 겨냥해 전국 범위에서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므로 반드시 (생체 장기적출과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저지해야 합니다.” “모든 증언을 기록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조속히 인터넷에 올릴 것입니다.”

중공을 알고 조기에 ‘3퇴’

[명혜망] 마르크스는 공산당의 첫 번째 강령 문서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1848년,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의 유령이 유럽에서 빙동거리고 있다.” 독일어 원문의 유령(Gespenst)이라는 단어는 유령, 마귀의 두 가지 뜻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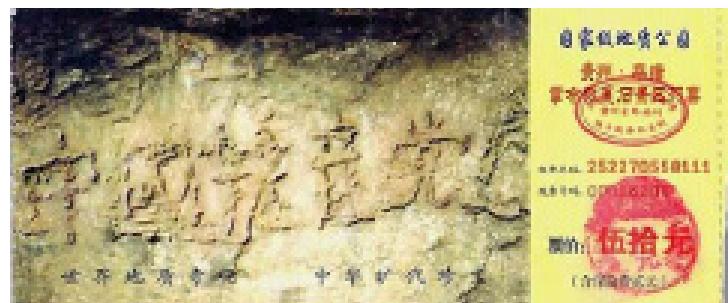
중공이라는 유령(사령, 마귀)은 매 하나의 생명을 해치고 살해하는 동시에 매 하나의 가정을 해치고 파괴하며, 심지어 매 하나의 가족을 산산이 훑어지게 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집과 가족을 잃게 한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20년 동안 이런 비극이 어찌 천만 뿐이겠는가! 중공은 정권을 도둑질한 70년 동안 아사자로 들판을 덮었고, 시체로 땅을 메웠으며, 살인을 삼대 베듯 했다. 진반, 반우, 4청, 문혁 등 역대 운동으로 8천만 명을 비명에 죽게 했다.

1989년에는 무고한 청년 학생들을 총과 탱크로 무자비하게 도살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는 파룬궁 박해 운동을 벌여 ‘진, 선, 인’ 신앙을 견지하는 수련인을 ‘날조된’ 죄명으로 감금, 형사판결, 고문지사,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로 살해했다. 중공의 70년 폭정 역사는 한 마디로 피비린내로 가득한 살인의 역사다.

현재 공산주의의 요소가 이미 전 세계에 침투해 있지만,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중공의 인권 상황을 갈수록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세계의 많은 국가가 결의안을 통해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행위를 질책하고, 파룬궁과 기타 양심수 장기 강제 적출을 비난하고, 베이징을 향해 20년에 걸친 파룬궁 박해 중지를 요구했다.

미국 국제 종교자유 대사 샘 브라운백은 2019년 3월 8일 홍콩에서 종교 신앙에 대한 박해 중지를 베이징에 호소했다. 그는 중공의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파룬궁 등 종교 신앙 단체에 대한 박해, 그리고 파룬궁과 기타 양심수 장기 강제 적출을 비난하고, 베이징을 향해 20년에 걸친 파룬궁 박해 중지를 요구했다.

현재 20만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고, 국제사회 정의인사 300만 명이 연대서명으로 장쩌민을 고발했으며, 3.3억이 넘는 민중이 중공을 버리고 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탈퇴했다. 국제사회의 갈수록 많은 국가가 파룬궁을 주시하면서 중공 정권에 파룬궁 박해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인민을 70년 동안 잔인하게 박해한 공산 사령은 사면초가에 처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인은 천시, 지리, 인화를 말하는 바,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구이저우의 ‘장자석’은 “중국공산당 멸망”을 미리 알려주었다! ‘7대 위험’이든, ‘봉구필란(逢九必亂)’이든, ‘위기 직면’이든, 중공의 온갖 악행으로 하늘과 사람이 노하고, 사람과 신이 공분한 세월이 70년이며, 그것이 멸망할 때도 머지 않았다. 고귀한 중국 동포들이 하루 빨리 ‘3퇴’해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기를 바랄 뿐이다.